

개흉술후 동통치료를 위한 침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안성국·김수출·이재영·조규석·박주철·유세영

개흉술후 발생하는 동통치료를 침술을 이용함으로써 진통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대상은 95년 1월부터 95년 9월 사이에 경희대학교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중에 비교적 짧은 시간(2시간 이내)이 소요되는 기흉, 버어거씨 병 등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의 연령은 18~70세 사이의 남자 9명과 여자 1명을 진통제만으로 통증 조절을 하였다.

실험군의 연령은 16~61세의 남자 10명으로 술전에 침술에 대해 설명후 동의를 받은 후에 술후 회복실에서 침술요법을 시행후에 필요에 따라 진통제를 주었다.

침요법은 늑간 신경통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진 지구혈, 양릉천혈, 장문혈에 길이 6mm의 스테인레스 제재의 1회용 피내침을 사용하였다.

수술일과 술후 1, 2, 3, 5, 7일에 Scoring system of post operation에 준해 평가하였다.

6일간 사용한 진통제의 수는 대조군이 13.7회/6일, 실험군이 2, 3회/6일 이었다.

결론적으로 침술을 사용함으로써 진통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간기능 저하, 약물에 대해 부작용을 지닌 사람에 대해 진통제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자를 도와줄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